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한국사 기출문제 및 최종 정답

| 편집 : 고시기획 | 출처 : 경찰청인터넷접수센터

01. 다음 국가의 장례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여 : 왕이 죽으면 옥갑(玉匣)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을 순장하였다.
- ② 고구려 : 돌무지무덤을 조성하고 그 앞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
- ③ 옥저 :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에 안치하였다.
- ④ 동예 : 무덤 양식으로 돌무지덧널무덤이 유행하였다.

02. 선사시대 유적과 출토 유물이 옳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연천 전곡리 유적 - 아舍利안형 주먹도끼
- ㉡ 제주 고산리 유적 - 덧무늬 토기
- ㉢ 부산 동삼동 유적 - 조개껍데기 가면
- ㉣ 양양 오산리 유적 - 토제 인면(人面)상
- ㉤ 부여 송국리 유적 - 비파형 동검
- ㉥ 여주 혼암리 유적 - 붉은 간 토기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03. 밀줄 친 '대궐'이 위치한 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성왕 22년 봄, 대궐 동쪽에 임류각(臨流閣)을 세웠는데 높이가 다섯 길이었다. 또한 연못을 파고 기이한 집을 길렀다. 신하들이 이에 항의하여 글을 올렸으나 듣지 않고 다시 간(諫)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대궐 문을 닫아버렸다.

- ① 외곽에 나성이 축조되었다.
- ② 김현창의 난이 일어난 곳이다.
- ③ 사비성 혹은 소부리성으로 불렸다.
- ④ 북성, 내성, 중성, 외성으로 구성되었다.

04.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신론(起信論)에서 “여래(如來)의 넓고 크며, 끝없는 도리를 총섭(總攝)하고자 이 논(論)을 설(設)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 논(論)의 뜻은 이와 같다. 펼치면 무량무변(無量無邊)의 도리를 본질(宗)로 삼고, 합하면 이문일심(二門一心)의 법을 핵심으로 한다. 이문의 안은 만 가지 뜻을 포용하나 어지럽지 않다. 무변이라는 뜻은 일심과 같고 또한 혼용(混融)된다.

<보기>

- ㉠ 법상종을 개창하였다.
- ㉡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였다.
- ㉢ 화쟁국사(和靜國師)라는 시호를 받았다.
- ㉣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고 화엄종을 창설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05. ㉠, ㉡에 들어갈 사건이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 - 웅진 도독부 설치
- ② ㉠ - 계림 도독부 설치
- ③ ㉠ - 황산벌 전투
- ④ ㉠ - 천리장성 완공
- ⑤ ㉡ - 백강 전투
- ⑥ ㉡ - 안동 도호부 설치
- ⑦ ㉡ - 안승 보덕국왕에 임명
- ⑧ ㉡ - 연개소문 사망

06. ㉠, ㉡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을 9월, (㉠)이가 고을부에서 우리 군사를 공격하므로, 왕이 (㉡)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가 장수에게 명령하여 정병 1만 명을 출동시켜 구원하게 하였다. (㉠)은 이 구

원병이 도착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겨울 11월에 수도를 습격하였다. 이때 왕은 왕비 및 후궁과 친척들을 데리고 포석정에서 연호를 베풀며 놀고 있었다.

-『삼국사기』-

- ① ㉠ -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 ② ㉠ - 천통(天統)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③ ㉡ - 금성(나주)을 점령하여 후백제를 견제하였다.
- ④ ㉡ - '훈요 10조'를 유훈으로 남겼다.

07. 밀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누가 말(言)로 적병을 물리치고 만대의 공을 세우겠는가?”라고 묻자 서희가 혼자 아뢰기를 “신(臣)이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왕이 강가까지 나가서 위로하며 전송하였고, 서희가 국서를 가지고 소손녕의 군영에 갔다.

-『고려사』-

- ①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 ② 동북 지방 일대에 9성을 쌓았다.
- ③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였다.
- ④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08. 밀줄 친 '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방경이 몽골 원수(元帥) 등과 더불어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적(敵)을 격파하니, 적의 장수 김통정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탐라에 들어가 숨었다.

-『고려사』-

- ① 승화후 온을 왕으로 삼았다.
- ② 서경 유수를 중심으로 봉기하였다.
- ③ 연호를 천개,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라 하였다.
- ④ 운문과 초전 등지에서 신라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09. 밀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승법사의 호법(護法)하는 뜻을 본받아 교장(敎藏)을 널리 찾아내는 것을 나의 책임으로 삼았다. 여러 종파의 의소(義疏)를 얻게 되면, 감히 사사로이 비장(秘藏)하지 않고 간행했으며, 책을 낸 후에 새로 발견된 것이 있으면 그 뒤에 계속해서 수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편집된 권질이 삼장(三藏)의 정문(正文)과 더불어 무궁하게 전해져 내려감이 나의 소원이다.

- ① 국청사를 창건하였다.
- ②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 ③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 ④ 강진에서 보현도량을 개설하였다.

10.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는 답험(踏驗)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하여, 모든 대소신료와 서민들에게까지 의견을 물어본 결과, 시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으니, 백성들의 의향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정의 의론이 분분해서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시행하지 않은 지 몇 해가 되었다. 호조에서는 시행하기에 알맞은 사목(事目)을 자세히 마련하여 아뢰라.

(나) 전하께서 신에게 명하여 해동 여러 나라와 조빙(朝聘)으로 왕래한 고사(故事), 관곡(館穀)을 주어 예우한 전례를 찬술해 가지고 오라 하셨다. 나는 삼가 옛 문적을 상고하고, 보고 들은 것을 덧붙여서, 지도를 그리고 간략히 세계(世系)의 본말과 풍토를 서술하고, 우리나라에서 접대하던 절차에 이르기까지 수집해 모아 책을 만들어 올렸다.

- ① 현량과가 실시되었다.
- ② 모문룡이 가도에 주둔하였다.
- ③ 수신전과 흘양전이 폐지되었다.
- ④ 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하였다.

11. (가) 법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얼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옛 법이 아니다. 영락 13년 우대인 서선 등이 아뢰기를 “서얼의 자손은 현직에 서용하지 말아 적서의 분별을 하소서.”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영락 13년 이전에는 현직에도 서용되었던 것이며, 그 이후에는 다만 과거에 응시하고 정반(正班)에 진출하는 것만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가) 을/를 편찬한 뒤로부터 금고(禁錮)를 가하기 시작했으니, 현재 아직 백 년도 되지 못한다.

-『해관잡기』-

- ① 『경제육전』 편찬의 토대가 되었다.
② 성종 때 6전 체제로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③ 양난 이후 새롭게 변화된 사회상을 담았다.
④ 법 조항을 원, 속, 증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12.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무릇 천자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하늘이 천자를 공중에서 내려보내서 세운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게 하여 천자가 된 것인가. 여러 현장(縣長)들이 함께 추대한 자가 제후가 되며, 제후들이 함께 추대한 자가 천자가 되니, 천자란 민중이 추대하여 만든 것이다. ° 활차(滑車)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두 가지 편리한 점이 있으니 첫째는 사람의 힘을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바퀴가 서로 통하고 서로 뿜기는 방법을 이용하면 천하에 무거운 물건이 없습니다.

- ① 『목민심서』, 『경제유표』 등을 저술하였다.
②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노비제, 과거제 등 여섯 가지를 ‘나라의 짐’으로 규정하였다.
④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며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 다음 보고를 받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박권이 보고하였다. “총관이 백두산 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는데, 압록강의 근원이 산허리의 남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경계로 삼았으며, 토문강의 근원은 백두산 동쪽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총관이 이것을 가리켜 두만강의 근원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이 되었으니 분수령 고개 위에 비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① 신해통공이 단행되었다.
② 괴산에 만동묘가 건립되었다.
③ 정여립 모반 사건이 일어났다.
④ 황사영 백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14. (가)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이)라는 한 책이 유포되는 것을 보고서 저도 모르게 머리털이 쭈뼛 서고 간담이 떨렸으며, 곧이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본래 혐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헛되이 다른 사람의 이간질을 믿어서 우리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원교(遠交)를 믿고 근린(近隣)을 도발하여 만약 이를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장차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보기>

- ㉠ ‘조선 중립화론’을 제기했다.
㉡ 주일 청국 외교관 황준헌이 저술하였다.
㉢ 『일동기유』를 저술한 인물에 의해 전래되었다.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영향을 끼쳤다.

- ① ㉠㉡ ② ㉠㉢ ③ ㉡㉣ ④ ㉢㉣

15. 다음 조약이 체결되었던 당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제1관 앞으로 대한민국과 대청국은 영원히 우호를 다지며 양국상인과 인민이 거류하는 경우 모두 온전히 보호와 우대의 이익을 얻는다. 제2관 이번 조약을 맺은 이후부터 양국은 서로 병권대신을 파견하여 피차 수도에 주재시키고, 어울러 통상 항구에 영사등의 관원을 설립하는 데 모두 편의를 봐줄 수 있다. 제5관 재한국 중국 인민이 범법(犯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영사관이 중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하며, 재중국 한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 영사관이 한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한다.

- ① 광무 연호가 사용되고 있었다.
② 대한매일신보가 발간되고 있었다.
③ 금분위 화폐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④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었다.

16.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 황제는 외관상으로는 아직까지 통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 대신들은 당분간은 일본인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약이 공포되고 난 며칠 후, 이로 인하여 한국민중의 동요가 그렇게 극심하게 증대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후에야 그때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추가 협약 사실이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 황제가 자신의 군대를 해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외교 보고서 -

- ① 재정 및 외교 고문 용방이 규정되었다.
②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③ 베베르-고무라 각서 체결에 영향을 끼쳤다.
④ 대한제국 황제의 서명 날인이 없이 조인되었다.

17.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민족은 맨손으로 분기하고 붉은 피로써 독립을 구하여 세계 혁명사에 있어 한 신기원을 이룩했다. 갑진(甲辰)의 정서 6조와 을사조약 체결 이래 독립운동이 하루라도 그친 적이 없었으니, 독립을 위해 순사(殉死)한 우리의 의병이 수십만이고, 독립을 위해 순사한 우리의 열사가 천백이며, 우리의 지사단(志士團) 중 아직 죽지 않고 국내외로 바삐 뛰어나며,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국혼(國魂)을 불러일으키는 자 또한 수없이 많다.

- 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②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제창하였다.
③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등을 저술하였다.
④ 친일적 대동학회에 대항하여 대동교를 창시하였다.

18. 밑줄 친 ‘본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단(本團)은 일찍부터 실행을 중하게 여기고 발언을 피하여 왔다. 그런 까닭으로 이번 최홍식, 유상근 두 의사의 다롄(大連) 사건에 대해서도 일체 침묵을 지켰으나, 놈들 간악한 적은 여러 가지로 요언(謠言)을 만들어내고, 또 다롄 폭판 사건은 국제 연맹조사 단원을 암살하려는 음모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가 승인할 수 없는 바이다. 본단은 왜적 이외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같이 친우로 대하려 하며 절대로 해치지 않으니, 이것은 흥취우공원 사건이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 ①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하여 군대식 조직을 갖추었다.
② 대종교 교인들이 결성하였고 북로군정서에 합류하였다.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인 김구에 의해 결성되었다.
④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 군사력 양성을 꾀하였다.

19. 밑줄 친 ‘본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全) 민족의 총의를 대표하며 이익을 보호할 만한 완전한 새 정권이 나와야 하며, 이러한 새 정권이 확립되기까지의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완전한 독립 국가 조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 정권을 수립하는 한 개의 잠정적 임무를 다하려고 한다.

- ① 미 군정 선포 직후 결정되었다.
② ‘기회주의 일체 부인’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③ 김규식과 여운형이 교대로 위원장을 맡았다.
④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는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20. (가), (나) 발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우리 진보당은 오늘 국민 대중의 절대적 기대와 촉망을 받으면서 우렁찬 고고(呱呱)의 소리를 울렸습니다. 우리 진보당은 광범한 근로 민중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하는 근로 대중 자신의 민주적 혁신적 정당입니다. (나) 상아의 진리탐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 ①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② 사사오입 개헌이 이루어졌다.
③ 신국가보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④ 민주당이 분화되어 신민당이 창당되었다.

【 경찰 2차 한국사 기출문제 정답 】
01. ④ 02. ④ 03. ② 04. ② 05. ① 06. ② 07. ③ 08. ① 09. ① 10. ③
11. ② 12. ① 13. ② 14. ④ 15. ① 16. ② 17. ④ 18. ③ 19. ④ 20. ③
※ 해당 강의 기출문제 해설은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